오대산 가을 적시는 문화 축제 열린다

2019오대산문화축제 '마음의 빛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불교문화축제가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1~13일 오대산박물관 마을, 오대산자연명상마을OMV 일대에서 2019오대산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오대산문화축제는 16회를 맞이해 독특한 주제로 열린다. 바로 '마음의 빛깔' 이다. 월정사 측은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기운이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빛깔"이라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월정사 탑돌이 알려

이번 오대산문화축제 개막식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탑돌이로 시작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새롭게 작곡한 탑돌이 노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월정사 탑돌이는 불교전통 신앙형태의 하나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탑돌이 노래는 이런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이밖에 김성녀, 주병선, 국악관현악단, 강원연합합창단 등의 무대와 오대보살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탑돌이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서서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여하며 100만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교 미래를 밝히기 위해 열리는 법회다.

소리공양으로 불교수행 미적 승화

그 다음날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음악성을 강조한 음악가들의 공연으로 열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이자 크로스오버의 거장인 양방언이 시공을 초월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세상의 하나뿐인 목소리 가수 더원과 소프라노 차보람의 노래로 오대산사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소리공양대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염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회로, 염불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방법을 추구 장단, 랩 등 창작적인 요소를 더해 염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 캐릭터 · 이모티콘 공모전' 은 과거의 문화재가 미래의 문화재로 재탄생 되는 시간이며, 문화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강원도무형문화재인 방짜수저, 춘천필장, 불교목조각, 강릉단오제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대산 의궤박물관도 개관

이와 함께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실 의궤를 전시하기 위한 오대산 의궤박물관과 월정사의 성보를 전시하는 월정사 성보박물관도 10월 11일 문을 연다. 오대산박물관마을로 구성된 이들 기관에서는 각각 '조선왕실과 오대산' 특별전,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귀향전' 등이 11월 30일까지 열린다.

또한 '금강경을 품다' 라는 주제로 혜안 스님 서각 특별전과 가구디자이너 문승지가 탄허 스님이 강의 했던 서별당의 마루로 의자를 만들어 전시하는 특별전 등도 진행된다.

월정사 관계자는 "오대산에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쉰다. 단풍과 오대산 문화축제의 각양각색의 마음이 어우러져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즐거운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33)339-6616

"모교 후배 안전 도움 줘 기뻐요"

불자 선수 모태범 가족, 은석초에 소방물품 기부

불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모태범 씨와 그의 가족이 모교인 은석초등학교에 소방 안전 물품을 기증했다.

모태범 씨와 누나인 모은영 소방제품 전문제조 업체 '신영' 대표는 9월 30일 은석초등학교 소강당에서 '안전한 교실환경 조성 및 소방 안전 교육을 위한 소방 안전 물품 기증식' 을 개최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양형진 은석초교 교장, 정시화 동대부고 교장, 이영숙 동대부중 교장, 박현식 동국대 법인 사무처 총무부장, 모태범 씨 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모태범, 모은영 대표와 함께 자리한 모은영 대표 남편 이덕수 씨는 모두 은석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후배들의 안전을 위한 물품을 기증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이날 이들 가족은 가스계 · 분말 · 스프레이 소화기 · 휴대용 조명등 · 유도등 · 소화전 발신기 등 총 1491점 6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기증 직후 이사장 법산 스님은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이 은석 가족이 된 것은 귀한 인연을 얻은 것과 같다"면서 "모태범 씨와 모은영 대표가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물품을 기증해줘 감사하다.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제품 전문제조 업체 '신영' 은 9월 30일 은석초등학교 소강당에서 '안전한 교실환경 조성 및 소방 안전 교육을 위한 소방 안전 물품 기증식' 을 열고 6200만원 상당의 소방물품을 기증했다.

모은영 대표는 "최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예방 미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와 가족이 모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 기쁘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태범 씨도 "10년 만에 모교에 와서 기쁘다"며 "좋은 기운을 받고 간다.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노덕현 기자

육 · 해 · 공군 불교군종병 수련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육 · 해 · 공군 불교군종병 수련회를 실시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군종병들은 군종병 주특기를 부여받은 인가 군종병들로 육 · 해 · 공군 불교 군종병 총 80명이 참가했다.

이번 수련회서 군종병 참가자들은 군포교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군 사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교 힐링 명상, 불교문화 유적답사 등을 진행했다. 또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의 법문과 함께 평화의 불 봉안도 함께 진행됐다.

혜자 스님은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료 병사들을 부처님 도량으로 인도하는 아주 막중한 의무를 맡은 분들"이라며 "군승법사와 함께 동료 병사들의 종교 활동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군종병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날에는 소감문 작성 및 회향식을 끝으로 부대복귀가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②

"애들아! 사찰서 우리 친구 돼 볼까?"

강산 나투다픽처스 대표

"친구들을 꼬시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누면 더 좋듯이 불교를 함께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불교사찰 탐방 콘텐츠 '아이고절런(IGO절RUN)' 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 강산 나투다픽처스 대표는 최근 조계종 1기 불교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강 대표는 이번 크리에이터 공모에서 '안녕, 불교' 라는 뮤직비디오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강 대표는 "제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는 흥미를 유발하려 만들고 있다"며 "불교에 대한 흥미가 불교를 더욱 알게 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번 '안녕, 불교' 라는 뮤직비디오도 청년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찰여행 프로젝트-아이고절런' 을 시작으로 다 같이 사찰여행을 가는 '위고절런(WEGO절RUN)' ,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불리버리(불교+딜리버리)' , 스님의 청년들에 대한 조언을 담은 '선문선답' , 불교 교리강좌인 '불경' 까지 여러 콘텐츠들을 제작했다.



강산 대표는 홀로서기였던 지난 불교 크리에이터 진용에 점차 젊은 세대들이 가담하는 것이 든든하다고 기대했다.

강 대표는 "처음 사찰에 갔을 때 그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매료됐고 영상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의 연출과 편집 등 모든 작업은 모두 강 대표의 몫. 하지만 오히려 1인 제작인 만큼 B-boy 활동을 한 그의 톡톡 튀는 감각이 담겨 있다.

"이번 불교 크리에이터에 저를 포함하여 7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기쁩니다. 불교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불교도 젊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보다 새로운 콘텐츠로 불자들을 찾을 강 대표. 강 대표는 유튜브 아이고절런 구독을 당부하며 밝게 웃었다.

"아직은 비밀이지만 더욱 새로운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어요. 현대불교신문의 많은 구독자님들 나투다픽쳐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고절런 구독!"

노덕현 기자

'나눔' 노래한 수국사 산사음악회

수익금 3050만원 장학금 · 복지기금으로 기탁

서울 수국사가 산사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지역복지기금과 장학금 등으로 회향해 눈길을 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6회 나눔의 노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힐링 자비 음악회' 를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는 불자와 시민 3000여 명이 몰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위상을 뽐냈다.

특히 수국사는 지정좌석 1000석에 대한 수익금 총 3050만원을 인재불사 장학금과 저소득계층 복지기금으로 기탁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기금을 비롯해 동국대 장학금, 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리틀붓다합창단 장학금, 스노보드 알파인 국가대표 최보군 장학금, 구산동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은 "한 표 한 표 수국사 나눔 음악회에 매년 표를 구입해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내빈"이라며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음악회에는 한국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꾼 장사익 씨를 비롯해 불자 가수 우순실, KBS전국노래자랑 상반기 결선 대상 수상자 국악인 권미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전수자 정현숙, 세계 비보이 대회서 30여 차례 우승한 비보이그룹 퓨전엠씨, 수국사와 정해사 연합합창단, 제주 약천사 어린이합창단, 김경호 밴드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대중에게 선사했다.

한편 수국사 음악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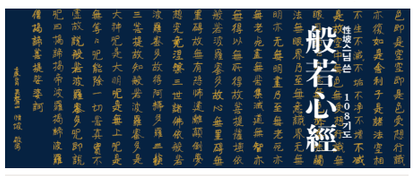
한글법화경 및 한글 · 한문사경노트



성파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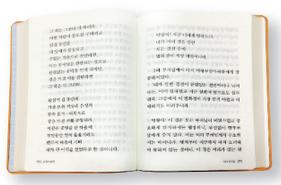
• 1939. 출생
• 1960. 10 통도사 월하선사로부터 사미계
• 1970. 04 통도사 월하선사로부터 비구계
• 1971. 01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 1980. 02 학교법인 원효학원 해동중고등학교 이사장
• 1981. 03 통도사 주지 역임
• 1984. 06 성파 시조 문학상 제정
• 1985. 03 전국 시조 백일장 제정
• 1988. 05 학교법인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
• 1990. 03 서법전 (PRESS CENTER SEOUL GALLERY)
• 1996. 08 전통염색문화강좌개설
• 2000. 05 십육만 도자 대장경 조성 완료
• 2007. 02 법인설립 (사)한국 전통 문화 연구원 이사장
• 2013. 04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 2014. 03 '도자대장경' 16만장 제작 (장경각 완료)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
• 2016. 06 성파 서법전 (한국미술관)
• 2017. 06 옻칠회화전_월인천강지화 (경남도립미술관)
• 2017. 09 성파 옻칠 도자전 (아라아트센터)
• 2018.03.20 통도사 방장(현)

性坡스님 쓴 『般若心經』 사경노트
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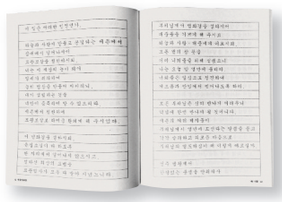
한글법화경



통도사 서운암편 『한글법화경』, 값 20,000원



한글법화경 사경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한글법화경 사경노트』, 전 7권(1질), 값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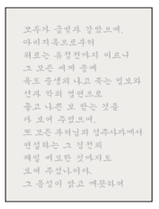
모조지 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 전7권(1질) 70,000원

『한글법화경 모조지 사경노트』





모조지 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 전7권(1질) 70,000원

『한문법화경 모조지 사경노트』





한지 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 전7권(1질) 200,000원

『한문법화경 한지 사경노트』





(주)이화문화출판사 구입문의 02-732-7091~3 전국유명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